◈ 산림청 선정

8월의 나무 : 배롱나무(부처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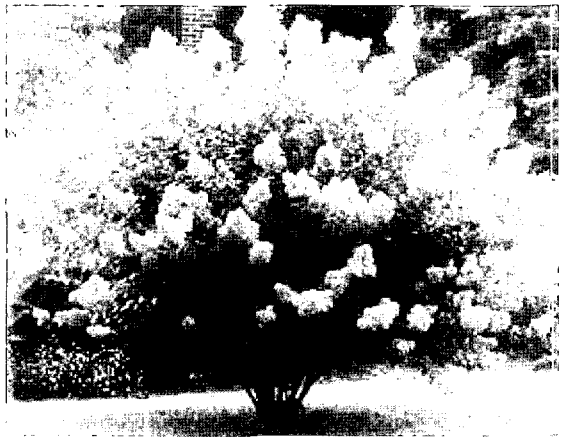
- 학·명 Lagerstroemia indica L.
- 지방명 간지럼나무, 백일홍나무, 백일홍낭(제주)
- 영·명 Crape-myrtle, Indian lilac
- 한자명 목백일홍(木百日紅), 자미(紫薇)

선정배경

여름철의 찌는 듯한 무더위는 인간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한다. 이런 점에서는 식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식물은 30℃가 넘는 한여름의 고온에서는 광합성 감소, 호흡과 증산작용 급증 등으로 심하면 잎이 시드는 위조현상까지 일으킨다. 반면에 배롱나무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배롱나무의 꽃은 여름철 더위와 함께 피기 시작하여 가을철 찬바람이 돌기 직전까지 약 100여 일간 지속적으로 피고 매끈하게 생긴 나무껍질도 그 특유의 시원한 느낌 때문에 오래전부터 여름 꽃나무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8월의 나무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국남부원산으로 높이 5~6m정도까지 자라는 낙엽성의 중간키나무이다. 주로 충청도 이남에 심고 있으나 경기도 일부지역과 서울에서도 겨울에 월동이 가능하다. 나무 전체의 형태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둥근 타원형을 이루고 줄기는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나 껍질이 벗겨진 자리는 백색이다. 새로 나오는 일년생 가지의 단면은 네모로 각이 지며 잎은 서로 마주난다. 꽃은 7~9월에 주홍색으로 피고 열매는 10월에 성숙된다. 생육은 토양이 비옥하



△ 배롱나무 수형

△ 배롱나무 줄기

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특히, 자갈과 모래가 섞인 토양에서 자란 나무가 나무껍질이 더욱 아름답다고 한다. 공해와 건조에는 강하지만 추위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번식은 봄에 종자를 파종한다.

쓰임새

관상과 약용으로 쓰인다. 배롱나무는 오래전부터 사당이나 사찰 등에 즐겨 심어왔던 관상수이다. 여름철 주홍색으로 피는 꽃은 멀리서도 쉽게 눈에 뛸 정도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이 피는 기간도 100여일정도로 매우 길다. 또 줄기는 미끈하면서 백색의 얼룩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고 겨울에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줄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고풍스러움과 멋스러움이 더해 가는 특징이 있어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더해준다. 이외에도 봄에 잎이 돋아날 때 붉은색을 띤다든지 가을철의 단풍 등 관상수로서는 더할 나위없는 좋은 나무이다. 또한 나무껍질과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주로 지혈, 해독, 천식 등에 효능이 있으며 잎에는 타닌성분을 다량 함유하여 철을 매염제한 흑갈색 계통의 색을 얻을 수 있는 염료식물로도 이용된다.

유래 및 전설

"배롱나무"는 "목백일홍"으로 더욱 잘 알려진 나무로서 꽃이 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 나무껍질이 매우 얇고 매끈하여 간지럼을 잘 탄다는 의미로 "간지럼나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8월의 풀 : 익모초(꿀풀과)

- 학 · 명 Leonurus sibiricus L.
- 지방명 육모초, 곤초, 암눈비앗, 사능초, 충위
- 영 · 명 Siberian mother wort
- 한자명 익모초(益母草), 세엽익모초(細葉益母草)

선정배경

"무더위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의 더위로 생체리듬이 깨어지기 쉬워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를 찾고 다양한 건강식으로 몸을 보양하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생활이 여유롭지 못했던 시절에는 여름철에도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었고 강한 햇볕 아래에서 무더위와 과로로 인해 일사병에 걸리기 일쑤였다. 이때에는 주위 들녘에 자라는 "익모초"가 특효였다. 그 녹즙을 만들어 마시면 식욕이 돋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여름철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활용되었던 익모초를 8월의 풀로 선정하였다.

▲ 익모초 꽃

▲ 익모초 잎

일반적 특성

전국의 들에 자생하는 두해살이풀로서 높이 150cm정도까지 자라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대만, 중국 등에 분포한다. 식물체는 직립하여 위로 곧게 자라고 줄기는 사각형으로 전체에 털이 있으며 잎은 서로 마주나기(對生)한다. 꽃은 7~8월에 연한 홍자색으로 피고 줄기의 윗부분 잎겨드랑이에서 여러 개가 층층으로 달린다. 열매는 9월에 성숙되고 종자는 검은색이다. 생태적으로 햇빛이 잘 들고 수분이 많고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번식은 종자를 채취하여 그해 바로 뿌리거나 봄에 파종한다.

쓰임새

약용으로 쓰인다. 익모초는 예로부터 여인들을 위한 약제로 이용되어 왔다.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강목"에도 익모초의 잎과 줄기로 녹즙을 내어 먹으면 몸속의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과 해독 그리고 산후어혈 등에 좋다는 기록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민속에서도 단오 때에 익모초와 쑥을 뜯어 그늘에 말렸다가 약용으로 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민간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먹어 식욕이 없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녹즙을 특효약처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익모초의 즙은 매우 쓰기 때문에 먹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익모초를 끓여서 조청처럼 만들거나 차로 또는 가루를 내서 환약을 만들어 먹는다. 익모초의 꽃에는 많은 꿀을 함유하고 있어 밀원식물로도 이용된다.

유래 및 전설

"익모초"라는 이름은 어머니 즉 산모(産母)에 이로운 풀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다.

9월의 나무 : 층꽃나무(마편초과)

- 학·명 Caryopteris incana (Thunb.) Miq.
- 지방명 층꽃풀
- 영·명 Blue mist spirea, Autumn blue spiraea, Common blue
- 한자명 난향초(蘭香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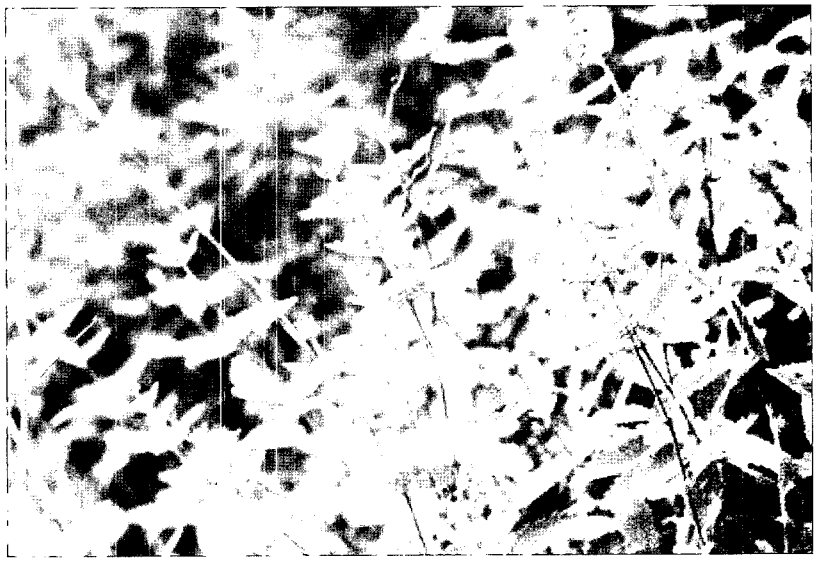
선정배경

가을의 문턱인 9월은 여름동안 더위를 이겨내고 자라난 식물의 가지에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이다. 이 중 9월에 꽃이 절정을 이루는 "층꽃나무"는 하얀 뭉게구름이 높이 떠있는 파란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린다. 꽃은 쪽빛의 보라색으로 신비하고 고결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최근 관상용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층꽃나무는 전체적인 생김이 풀에 가깝다고 하여 "층꽃풀"이라고도 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목본류(木本類) 즉 나무로

▲ 층꽃나무

▲ 층꽃나무

분류되는 식물이다. 나무와 풀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겨울동안 지상부의 고사 여부이다. 층꽃나무는 지상부의 윗줄기 부분은 죽지만 아랫줄기 부분은 살아남아 다음해에 새로운 잎을 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엄연한 목본식물이다. 9월의 나무로 선정하였다.



▲ 층꽃나무

일반적 특성

햇빛이 잘 들고 건조한 산지에서 높이 30~ 60cm정도까지 자라는 낙엽성의 작은키나무이다. 주로 충청도 이남에 분포하지만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까지 자생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도 분포하고 있다.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돋아나와 자라며 잎은 서로 마주나기(對生) 형태이다. 꽃은 8~9월에 줄기 윗부분의 잎이 돋아난 곳을 따라 짙은 보라색의 꽃이 모여달린다. 열매는 10월에 성숙되며 종자는 검은 색이다. 자생지의 환경은 주로 척박하고 건조한 절개 사면이나 바위 곁에 여러 개체가 모여 자란다. 번식은 봄에 종자를 파종하거나 여름에 가지를 잘라 꺾꽂이를 한다.

쓰임새

관상과 약용으로 쓰인다. 층꽃나무는 꽃 피는 량이 많은 나무이다.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돋아나오고 각 줄기의 윗부분에 여러 개의 짙은 보라색 꽃이 모여달리기 때문이다. 공원이나 도로변에 모아심기를 하면 가을 하늘과 어울리는 쪽빛 장관을 이루어 관상의 즐거움을 더욱 만끽할 수 있으며 꽃에는 많은 꿀을 함유하여 도심공간에 벌과 나비를 유인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절화용 소재로도 개발되고 있어 유망자생식물자원으로 발굴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나무이다. 또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한 지상부와 뿌리는 한방에서 "난향초(蘭香草)"라고 하여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래 및 전설

"층꽃나무"는 꽃이 줄기를 따라 잎겨드랑이마다 많이 모여 달리는데 이것이 마치 계단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꽃이 층을 이루며 피는 나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9월의 풀 : 꽃며느리밥풀(현삼과)

- 학 · 명 Melampyrum roseum Maxim.
- 지방명 꽃며누리바풀, 꽃새애기풀, 새애기풀, 며느리꽃, 며느리밥풀
- 영 · 명 Rose Cow wheat, Pink Cow wheat
- 한자명 산라화(山蘿花)

선정배경

우리의 자생식물 중에는 식물의 생김보다는 이름으로 보다 잘 알려진 것들이 많다.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슬픈 전설을 통해서 또는 문학 속에서 자주 그 이름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꽃며느리밥풀"도 그러한 경우로서 뜰이나 정원 등과 같은 우리 삶 주변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꽃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친근감이 가는 자생식물이다. "꽃며느리밥풀"은 생태적으로 다른 생물과 기생하는 관계를 갖는 식물로 종자만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화분이나 정원에서 키우기는 어려운 식물이다. 무더위가 지난 9월은 "꽃며느리밥풀"을 찾아 산속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이기에 이달의 풀로 선정하였다.

▲ 꽃며느리밥풀

일반적 특성

▲ 꽃며느리밥풀

전국에 걸쳐 산지의 숲 가장자리에서 높이 30~50cm정도까지 자라는 반기생성 한해살이풀이다. 지리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분포하고 있다. 줄기는 네모로 각이 져있고 잎은 서로 마주나기(對生)한다. 잎의 형태는 긴 타원상 피침형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7~9월에 연한 붉은색으로 줄기의 끝에 모여 달리는데 꽃부리의 중앙에는 밥알모양의 흰색 무늬가 2개 있다. 열매는 9월에 성숙된다. 자생지의 환경은 낙엽활엽수로 이루어진 약간 건조한 숲에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따라 여러 개체가 모여 자란다. 번식은 종자로 이루어진다.

▲ 꽃며느리밥풀

쓰임새

약용과 관상으로 쓰인다. 꽃며느리밥풀은 꽃부리의 중앙에 새겨진 밥알무늬와 연관하여 전해오는 슬픈 전설로 인해 우리에게 더욱 정감이 가는 자생식물이다. 하지만 생태적으로 다른 생물과 기생하여 자라는 특성 때문에 화분이나 정원에 심어놓고 관상하기가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약용으로는 지상부와 뿌리를 이용하는데 피를 맑게 하고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꽃에는 꿀을 함유하여 밀원식물로도 활용가능하다.

유래 및 전설

꽃며느리밥풀"라는 이름은 꽃부리의 중앙에 있는 2개의 밥알무늬와 연관하여 전해오는 슬픈 전설에서 유래한다. 이 전설은 경기도 이천군에서 전해오는 것으로 옛날 제삿밥을 짓던 며느리가 밥의 뜸

이 잘 들었나를 확인하려고 밥알 몇 개를 입에 넣었다가 때마침 부엌에 들어온 시어머니에게 들켜 조상에게 올리기 전에 제삿밥을 훔쳐 먹었다는 오해를 받고 맞아 죽은 뒤 며느리의 무덤가에 피어난 꽃이 바로 "꽃며느리밥풀"인데 그 며느리의 억울함과 한 때문에 꽃부리에는 밥알 두개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10월의 나무 : 모과나무(장미과)

- 학·명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 지방명 모과
- 영·명 Chinese flowering-quince
- 한자명 목과(木瓜), 화이목(花梨木), 명려, 명사

선정배경

가을은 사색의 계절 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이는 기후가 독서와 사색하기에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리적으로 성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는 가을에는 독서와 사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뇌활동이 차분해져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사랑방 한쪽 모퉁이 탁자위에 모과를 얹어 놓고 가을 햇살의 온기처럼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모과향을 느끼며 독서삼매경에 빠져 들곤 하였으며, 모과를 차나 술로 담아 약용을 겸한 기호식품으로 만들어 애용하였다. 10월에는 은은한 가을향기를 물씬 느끼게 하는 모과향에 취해 독서삼매경에 빠져 보는 것도 좋을 듯싶어 이달의 나무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국에서 도입되어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마을 주변에 주로 심겨졌으며 낙엽성의 중간키나무로 높이 15m까지 자란다. 나무의 줄기는 붉은 갈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얼룩무늬가 있으며 비늘모양으로 벗겨진다. 잎은 서로 어긋나기(互生) 형태로 달려 있다. 꽃은 4~5월에 연분홍색으로 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9~10월에 황색으로 성숙되는데 단단하며 향기가 있다. 주로 햇빛이 잘 들고 토양이 깊으며 비옥한 곳에서 생장이 좋고 꽃과 열매가 잘 달린다. 추위, 공해 등 환경적응성도 강하여 도심지에서도 식재가능하다. 번식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봄에 파종하거나 접붙이기와 꺾꽂이로도 증식한다.

쓰임새

관상, 용재 및 약용으로 쓰인다. 모과나무는 향기 그윽한 꽃과 비늘모양으로 벗겨지는 나무줄기

▲ 모피나무

▲ 열매와 꽃

▲ 수피

그리고 노란색으로 익으며 주변을 향긋한 향기로 가득 채우는 열매가 좋아 관상을 목적으로 정원에 즐겨 심고 분재용으로도 가꾸어 왔던 나무이다. 그뿐 아니라 나무의 목재는 붉은색에 단단하고 광택이 있어 칼자루와 칼집을 만드는 목공예품이나 장롱, 화류장 등과 같은 고급가구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열매는 단단한 석세포(石細胞)로 이루어져 식용으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향기가 좋아 예전에는 모과를 삶아 꿀에 담근 후 삭혀서 만든 "모과수(모과숙이라고도 함)"를 만들어 먹거나 모과차나 술을 담아 이용하였는데 감기, 천식, 기침 등에 약효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모과향을 이용한 방향제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래 및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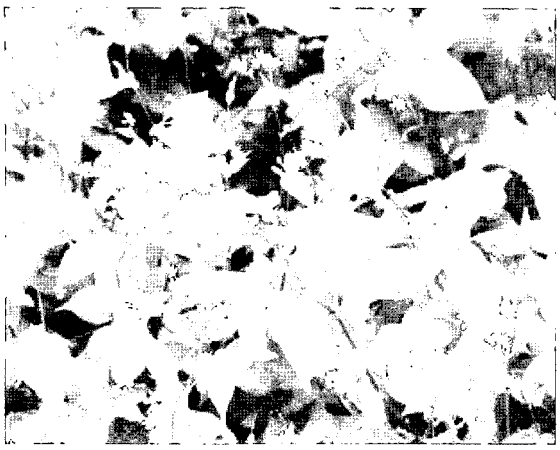
모과나무"는 한자이름인 "목과(木瓜)"가 발음될 때 절음되어 "모과"로 부르게 된 것이지만 열매의 약용효과에 비유하여 "목에 좋은 과실나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 옛말의 "모과에 세 번 놀란다." 라는 말은 과일이 너무 못생겨 놀라고, 못생긴 과일에서 나는 향기가 좋아 놀라고, 향기는 좋은데 맛이 없어서 세 번 놀란다는 의미이다.

10월의 풀 : 고마리(마디풀과)

- 학 · 명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 Gross e
- 지방명 고만이, 고마리때, 고맹이풀, 고만잇대 (북한)
- 영 · 명 Thumberg knotweed
- 한자명 극엽료(戟葉蓼)

선정배경

갈대, 물옥잠 등의 식물이 오염된 수질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가을에 개울가나 도랑 주변으로 무리를 이루며 연분홍,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는 "고마리"가 수질환경 개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고마리는 납이나 카드륨과 같은 중금속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오염된 물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여 수질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는 수질정화식물이다.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기에 잡초로만 생각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고마리"의 가치를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 고마리

▲ 꽃(근경)

좋을 듯싶다. 10월의 풀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전국에 걸쳐 도랑이나 산지의 물가에 무리를 이루며 30~100cm정도까지 자라는 한해살이식물이다.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도 분포하고 있다. 잎은 서로 어긋나기 형태로 달려 있고 줄기에는 능선을 따라 아래로 향하는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다. 꽃은 8~10월에 줄기의 끝에서 여러 송이가 모여 피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은 꽃받침이고 꽃잎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꽃받침은 흰색바탕에 바깥쪽으로 붉은색이 물들어 있는 것에서부터 순수하게 흰색으로만 피는 것 등 색상이 다양하다. 열매는 9~10월에 황갈색으로 성숙된다. 생명력이 강하여 물기가 있는 땅에서는 어느 곳이나 잘 자라며 번식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바로 파종하거나 저온(4℃이하)에 저장하였다가 이른 봄에 파종한다.

쓰임새

식용, 약용 및 환경정화용으로 쓰인다. 고마리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잡초와 같이 여겨졌던 식물이지만 예전에는 이른 봄에 어린 잎과 연한 줄기를 채취하여 나물과 국거리로 이용하였고 민간에서는 지혈제, 요통, 소화불량, 시력회복 등의 약재로도 활용되었던 식물이다. 하지만 고마리의 참모습은 다른 곳에 있다. 생태환경에 축적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오염된 물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신경 써서 특별히 심지 않아도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으로 오염되고 약간은 지저분한 곳에 저절로 자라며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니 이보다 고마운 식물이 어디 있겠는가.

유래 및 전설

시골에서는 "고마리" 보다는 "고만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게 불러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식물이 줄기와 뿌리 뻗음이 좋아 너무 잘 퍼지기 때문에 이제 고만 자라서 그 정도로만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로 "고만이풀"이라 부르게 된 것에서 유래한 듯싶다.

◆ 산림자원의 혜택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숲이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임목축적은 일본이 145㎥, 독일이 268㎥, 스위스가 337㎥인 반면 우리나라는 73㎥로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이하 수준으로 턱 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는 나무가 자라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 등이 선진국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숲이 아직도 성장단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육하고 있는 나무의 나이는 30년 이하가 전체 산림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림대별로는 침엽수림이 42%, 활엽수림이 26%,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고 있는 혼효림(混淆林)이 30%이고 나머지 2%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암석지로 이루어져 있다.

소유별 현황은 전체산림의 70%인 4,459천ha가 사유림이고 국유림은 23%인 1,457천ha, 공유림은 7%인 490ha이다.

산림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산림은 대기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상의 원만한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있다. 산림 1헥타르에서는 연간 21명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한다고 하며, 우리나라 전체 산림은 우리나라 연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약 13퍼센트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산림은 수원함양으로 댐기능과 정수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193억톤의 물을 머금을 수 있어 유효저수량 19억톤 규모의 소양강댐 10개의 건설효과와 맞먹는 물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빗물의 35%, 민둥산은 10%가 지하수로 되며 낙엽활엽수림의 땅은 나무가 없는 땅에 비해서 14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산림은 재해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숲이 잘 가꾸어진 산은 민둥산에 비해 토사가 흘러내리는 양을 약 0.5퍼센트 수준으로 줄여 준다고 한다.

나무뿌리와 크고 작은 풀, 낙엽 등이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토사유출 방지능력은 황폐지의 227배에 달한다고 한다.

네째, 숲은 산림휴양기능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0퍼센트 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심신이 피로할 때 우리는 숲을 생각하고 숲을 찾아가며 자아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새활에너지를 얻어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산림은 소음을 10~15데시벨(db)이나 줄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산림은 동식물 서식 및 보호 장소, 지구온난화 완화 방지, 소음방지기능, 문학·예술·종교적 배경 등 문화적 기능도 가진다.

이런 숲의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평가한 결과 약 50조원에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내 총생산액 517조 966억원의 9.7퍼센트이며, 국민 한사람이 산림에서 연간 약 10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이다.

숲을 숲답게 가꾸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목재생산을 요하는 숲은 양질의 목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경관이 필요한 지역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등 산림을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보전·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구분하여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늘리고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NGO가 산림의 난개발 방지 등 산림보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숲을 가꾸며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전대원 무주국유림관리소장〉

◆ 나무와 숲, 효율적 관리를

지난 여름 보호식물로 지정된 모감주나무의 생육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안지역을 들른 적이 있다. 모감주나무는 우리나라⇦중국⇦일본 등 자생지가 극히 제한돼 세계적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귀중한 유전자원이다. 이 종에 대해 세계의 식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외국의 전문가와 함께 충남 안면도에 자리한 자생지를 가보았다.

이 지역은 모감주나무가 400여그루 자라고 있는 국내에서 비교적 큰 자생군락지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철책으로 울타리를 치고 나무지지대를 설치해놓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관리가 잘되는 듯했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니 나뭇가지가 밑으로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에 구멍을 뚫어 굵은 쇠줄로 이를 묶어놓고 있었다. 마치 나무를 고문하는 것 같았다.

모감주나무는 줄기 번식이 뛰어나 종보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차라리 없는 게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생지 내부의 어린 나무는 풀과 함께 모두 베어진 상태여서 유전자원을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불 보듯 했다.

또 나무 각각에 붙어 있는 표찰에는 이름이 'Koelreuteria paniculata'가 'paniculara'로 이정표에는 'Chana Tree'라고 돼 있어 귀중한 자원을 관리하는 데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군락지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62년 천연기념물 138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나무는 살아 있는 생명체다. 나무를 마치 골동품과 같이 각각의 개체를 관리하기보다는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유기적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무와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화재 담당부서의 경우 나무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나무 전문부처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비전문기관에서 왜 이처럼 관리하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강호덕 동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